

+ 찬미 예수님

4/25-26일. Fr. Justin의 주일 미사 강론
한국어 번역입니다!
은총 가득한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행동하시는 여섯가지 방식

만약 여러분이 사제라면, 다음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누군가 고백성사를 보러 와서, 그들의 매우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또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믿기지않습니다. 그들은 울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너무 끔찍해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전형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게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곳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백성사에서 이런 상황은 수천 번 일어나기 때문에 독특한 것은 아니며
나는 고백의 봉인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신과 가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양심이 그렇게 예민하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당신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찌르십니다.”

- 하나님의 사랑의 패턴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여섯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첫번째 패턴은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루카 24:13-16).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옆에서 걸어가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모든 종교에서 인간은 항상 신을 찾고 있지만 그리스도에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찾고 계시다고 지적합니다.

-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고 믿고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대한 응답으로, 그분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을 찾도록 노력합시다! 하지만 그분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방금 언급한 대로 여러분의 양심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다음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하고 물으시자”(루카24:17). 예수님께서서는 답을 몰라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자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위치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하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모든 질문, 예를 들어, “정말 어떻게 지내니? 우리는 양심적으로 평온한가? 왜 우리는 그렇게 외롭고 애정에 매달리나?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나? 당신은 무엇이 가장 감사한가?” 이 모든 질문들은 예수께서 묻고 계십니다.

3.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두 제자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설명한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루카24:25-26).라고 말씀하십니다.

-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언자, 불완전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 최근 우리를 비난하거나 불러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언자들이 자기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종종 화를 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을

이용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 짜증을 낼 수 있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사실인가? 부분적으로 사실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수정을 놓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 남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깨운 말은 좋은 친구가 좌절감에 빠져 “넌 너무 이기적이야.”라고 말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상처되는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까, 부분적으로 사실입니까?

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현실의 큰 이야기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루카24:27). 예수님께서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실의 큰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일련의 연애 편지입니다 (<http://thejustmeasure.ca/2016/01/24/20160124-the-bible-transforms-us/>). 자,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 몇 주 후에 온라인으로 Faith Studies(신앙 연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려는 우리의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신앙 연구를 몇 단계나 했다면, 신약성서부터 시작해보십시오.

5.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하며 그분을 붙들었다”(루카24:28-29). ‘그분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방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알콜 중독자들은 그들이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성적 중독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초대와 기도를 기다리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원하는 만큼 받습니다. 우리를 안내하시도록 그분을 초대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분께서 제안하시는 대로 기꺼이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의지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6. 예수님께서서는 성찬식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루카24:29-31). 우리는 지난 6월

(<http://thejustmeasure.ca/2019/06/23/eucharistic-culture/>) 성경 학자들이 받아서, 찬미 드리고, 쯤게서, 그리고 준다는 네가지의 동사가 성찬식의 네가지의 동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예수님께서 여기서 미사를 축하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여기 한 이야기가 보여줄 것입니다. 버크 마스터스는 일리노이 출신으로, 부모가 그를 천주교 고등학교로 보낸 비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14살 때, 그는 마가렛 수녀의 종교 수업을 들었고 그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느날 수업이 끝난 후, 그녀가 문가에서 그를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버크 너는 지금 뭔가를 찾고 있어.” 그녀의 말이 맞았지만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를 몰랐습니다. “이걸 읽어봐.” 그녀는 그에게 첫 번째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태 복음을 읽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부분에 다다랐을 때, 그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신이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걸겠어.”라고 말했습니다.

- 2년 후, 그는 성찬식에 대한 가르침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피정에서 미사 중 신부가 모든 이들에게 성체를 주었고, 버크가 입을 열어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 신부는 성체를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이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몸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것을 존중했지만 18세가 될 때까지 1년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그는 사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1년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 그는 야구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프로 야구를 1년동안 뛰었지만, 더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망연자실 했습니다. 그는 사업에 뛰어들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지루했습니다.

- 그 기간 동안 그는 결혼하기에 완벽한 소녀인 스테파니를 만났고, 그녀는 그를 평생 처음으로 성체 조배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을 마주하는데, 그는 자신이 살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그들은 매주 한시간씩 기도를 하러 갔고, 버크는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버크, 네가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부가 아니라 총지배인이 되어 수백만 달러를 벌고 싶고 스테파니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하느님께서 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 스테파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이게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면, 나는 하느님과 경쟁할 수 없으니, 이 일을 시도해 봐야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첫 해가 지나자 평화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 몇달 후 그의 좋은 친구 매트가 “버크, 행복하니?”라고 물었고 그는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됐다, 왜냐하면 내가 스테파니랑 사귀어도 될까해서..” 4년 후 그들은 결혼을 했고, 누가 결혼식의 증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버크 신부!”입니다. 그리고 세 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몇년 후 그는 시카고 컵스의 천주교 신부가 되었습니다(<http://thejustmeasure.ca/2019/06/23/eucharistic-culture/>) ! 여기 버크가 우리 웹사이트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30분간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예수님의 행동 양식은 무엇입니까? 왜 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예수님께서 는 우리를 찾고 계신가요, 2) 우리의 행복에 대해 질문하시나요, 3) 우리를 바로 잡으시나요, 4) 우리에게 실제의 큰 이야기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5) 우리로부터 초대를 기다리시나요, 6) 성찬식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 우리는 미사 중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처럼, 저는 여러분을 온라인 채팅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답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마음속 어디에서 움직이고 계신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고 계신 것 같다/ 나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다/ 나를 바로잡고 계신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등등. 그리고 나의 대답도 말해주겠습니다.

로버트 스피처 신부는, 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무조건적인 사라의 전형이 될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눈과 생각에 앞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잡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실 것인가?” (*Five Pillars of the Spiritual Life*, 137). 맞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 고백성사에 와서 그들이 실제로 하느님과 가까이에 있다는 것, 그들의 비통한 마음을 통해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삶에서 그분께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위로로 빛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드뭅은 언였습니다!
-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6가지 방법으로 행동하심을 이해합니다.